K-medical 중심에서 완성된 가치, 명동 차앤박피부과의 새로운 도전









2026년 현재, K-메디컬과 K-뷰티는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환자들이 직접 찾는 '기준'이 되었다. 그 중심에서 명동 차앤박피부과는 오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를 바탕으로 한국형 피부치료의 가치를 꾸준히 증명해 왔다.



다년간의 임상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명동 차앤박피부과는 확장 이전을 통해 글로벌 환자 중심의 새로운 진료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개원이래 명동에서 2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해 온 시간은 자연스럽게 신뢰로 이어졌고, 이는 병원을 설명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되었다.

K-medical 글로벌 피부과로의 확장

지난 3월, 명동 차앤박피부과는 더 나은 진료 환경과 환자 경험을 위해 확장 이전을 진행했다. 새 단장을 위한 몇 개월간의 노력에 응답이라도 하듯, 환자들은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을 보내며 반겼다.
양정은 피부과 전문의(대표원장)는 “내원한 환자들이 낯설 수도 있는 변화에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 반응에서 저희가 걸어온 시간의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명동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환자들이 찾는 K-medical 중심지다. 이에 맞춰 명동 차앤박피부과는 **글로벌 진료 환경을 구축해왔다. 중국어·일본어·영어가 가능한 메디컬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상담부터 시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편안한 진료 경험을 제공한다.**

양정은 피부과 전문의는 “명동은 다양한 국적의 환자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언어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까지 고려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레이저 장비와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은 환자 개개인에 맞춘 맞춤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환자 중심, 1:1 피부주치의 시스템

모든 환자가 프리미엄 스킨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부티크형 진료 환경으로 설계했다. **특히 독립된 시술 공간은 환자가 자신의 치료 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다.
양정은 피부과 전문의는 “치료에 대한 이해가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 역시 그 신뢰를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여드름, 흉터, 주름, 색소, 탈모까지 피부 고민은 복합적이다. 이에 명동 차앤박피부과는 미용을 넘어 질환까지 개개인의 피부 건강을 위한 피부주치의를 자임한다. 이는 일회성 치료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피부 건강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다시, 명동에서 이어갈 다음 시간

명동에서 쌓아온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그러나 그 시간은 완성된 게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환자들이 찾는 K-medical의 중심에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부를 책임지는 피부주치의로서 명동 차앤박피부과는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익숙함을 넘어선 변화와 그 안에 담긴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갈 채비를 마쳤다. 프리미엄을 넘어선 한 단계 도약, 쌓아온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웰에이징을 향한 글로벌 부스팅이 시작된다.





